



24일 고창 해리면사무소에서 열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서 군 관계자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주민 설명회

환경부, 올 5~6곳 추가 계획

고창군이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24일 전북도 및 군 관계자,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리면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대학교 조규성 교수가 발표와 함께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와 그 효과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인증 조건은 공원면적 100km², 지질 명소 20개 이상, 필수조건 25개를 이행해야 하며 인증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이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지역브랜드 가치향상과 더불어 지질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울릉도·독도, 청송, 부산, 강원 평화지역, 무등산, 한탄·임진강 등 7개 지역이 국가지

질공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까지 5~6개 추가 인증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도내 우수 지질 자원을 현명하게 보전 및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창-부안권역과 진안-무주권역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고창군은 하전갯벌, 동호해안사구, 명사십리해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의 경수산·천마봉, 병바위, 고인돌군, 고창읍성 등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지질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도와 4개 시·군이 연계 협력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도와 4개 시·군 간 MOU체결, 지질공원 TF팀 구성,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지질자원조사 용역 등을 수행했으며 올해에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 인증 신청서를 올 9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창=김성규 기자

고창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해리면서 주민 설명회 개최 군 “9월에 신청서 제출 예정”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가 도·군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고창 해리면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규성 전북대 교수의

발표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와 그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현재 국내에는 제주도, 울릉도·독도, 청송, 부산, 강원 평화지역, 무등산, 한탄·임진강 7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

으며 환경부는 올해까지 5~6개 국가지질공원을 추가로 인증할 계획이다.

인증 조건은 공원면적 100㎢, 지질명소 20개 이상 및 필수조건 25개를 이행해야 하며 인증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지역브랜드 가치향상과 더불어 지질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해 지질자원조사 용역 등을 수행했으며 올해에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 인증 신청서를 올 9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창=신동일기자·ed1@

전북매일신문

2016년 02월 25일 목요일 010면 지역

국가지질공원 인증 주민설명회 큰 호응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24일 해리면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는 전북도·군 관계자와 군의원,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조규성 교수의 발표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와 그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인증 조건은 공원면적 100㎢, 지질명소 20개 이상 및 필수조건 25개를 이행해야 하며 인증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이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지역브랜드 가치향상과 더불어 지질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증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울릉도·독도, 청송, 부산, 강원 평화지역,



24일 해리면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는 전북도·군 관계자와 군의원,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무등산, 한탄·임진강 7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까지 5~6개 국가지질공원을 추가로 인증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도내 우수 지질자원을 현명하게 보전 및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창·부안권역과 진안·무주권역 등 2개 권역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고창군은 하전갯벌, 동호해안사구, 명사십리해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의 경수산·천마봉, 병바위, 고인돌군, 고창읍성 등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지질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도와 4개 시·군이 연계

협력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세부추진계획 수립, 도와 4개 시·군 간 MOU 체결, 지질공원 TF팀 구성,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지질자원조사 용역 등을 수행했으며 올해에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 인증 신청서를 올 9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을 위해 지질자원이 있는 소재 읍·면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인식증진 교육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조건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고창군은 지난 24일 해리면사무소에서 전북도·군 관계자와 군의원,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주민 설명회 개최

생태관광 주민소득 창출 효과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24일 해리면사무소에서 전북도·군 관계자와 군의원,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조규성 교수의 발표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와 그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인증 조건은 공원면적 100km², 지질 명소 20개 이상 및 필수조건 25개를 이행해야 하며 인증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이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지역브랜드 가치향상과 더불어 지질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증효과가 있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주민 설명회

고창

고창군이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24일 해리면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는 전북도·군 관계자와 군의원,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조규성 교수의 발표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와 그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고창=임동갑기자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등재 시동

주민설명회서 제도·효과 안내 및 의견수렴 인증 위한 기반구축 박차... 9월 신청서 제출

고창군이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24일 해리면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는 전북도·군 관계자와 군의원, 지역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조규성 교수의 발표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와 그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인증 조건은 공원면적 100km², 지질 명소 20개 이상 및 필수조건 25개를 이행해야 하며 인증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이다.

부터 4년이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지역브랜드 가치향상과 더불어 지질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증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울릉도·독도, 청송, 부산, 강원 평화지역, 무등산, 한탄·임진강 7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까지 5~6개 국가지질공원을 추가로 인증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도내 우수 지질자원을 현명하게 보전 및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창~부안권역과 진안~무주권역 등 2개 권역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고창군은 하전갯벌, 동호해안사구, 명사십리해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

의 경수산·천마봉, 병바위, 고인들군, 고창읍성 등 지역 내 산재돼 있는 지질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도와 4개 시·군이 연계 협력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세부추진계획 수립, 도와 4개 시·군간 MOU체결, 지질공원 TF팀 구성,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지질자원조사 용역 등을 수행했으며 올해에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 인증 신청서를 올 9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을 위해 지질자원이 있는 소재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인식증진 교육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조건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신익희기자

/syhee5311@hanmail.net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 조규성 교수 발표...지질공원 인증제도 · 효과 설명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24일 해리면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는 전북도·군 관계자와 군의원,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조규성 교수의 발표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와 그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인증 조건은 공원면적 100km², 지질

명소 20개 이상 및 필수조건 25개를 이행해야 하며 인증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이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지역 브랜드 가치향상과 더불어 지질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증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울릉도·독도, 청송, 부산, 강원 평화지역, 무등산, 한탄·임진강 7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까지 5~6개 국가지질공원을 추가로 인증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도내 우수 지질자원을 현명하게 보전 및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창·부안권역과 진안·

무주권역 등 2개 권역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고창군은 하전갯벌, 동호해안사구, 명사십리해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의 경수산·천마봉, 병바위, 고인돌군, 고창읍성 등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지질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도와 4개 시·군이 연계 협력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군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을 위해 지질자원이 있는 소재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인식증진 교육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조건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철수 기자

“국가지질공원 인증, 함께 노력해요”

고창군, 주민설명회 개최

고창군이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4일 해리면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는 전북도·군 관계자와 군의원,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조규성 교수의 발표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와 그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인증 조건은 공원면적 100㎢, 지질 명소 20개 이상 및 필수조건 25개를 이행해야 하며 인증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이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지역브랜드 가치향상과 더불어 지질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증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울릉도·독도, 청송, 부산, 강원 평화지역, 무등산, 한탄·임진강 7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까지 5~6개 국가지질공원을 추가로 인증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도내 우수 지질자원을 현명하게 보전 및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창-부안권역과 진안-무주권역 등 2개 권역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하전갯벌, 동호해안사구, 명사십리해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의 경수산·천마봉, 병바위, 고인돌군, 고창읍성 등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지질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도와 4개 시·군이 연계 협력해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정관진 기자

고창 '국가지질공원 인증' 주민 설명회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생태관광 통한 주민소득 창출 기대"

고창군이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24일 해리면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는 전북도·군 관계자와 군의원,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조규성 교수의 발표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와 그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인증 조건은 공원면적 100㎢, 지질 명소 20개 이상 및 필수조건 25개를 이행해야 하며 인증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이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지역브랜드 가치향상과 더불어 지질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증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울릉



고창군은 24일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독도, 청송, 부산, 강원 평화지역, 무등산, 한탄·임진강 7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까지 5~6개 국가지질공원을 추가로 인증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도내 우수 지질자원을 현명하게 보전 및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창·부안권역과 진안·무

주권역 등 2개 권역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군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을 위해 지질자원이 있는 소재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인식증진 교육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조건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종성 기자·kjs56730@daum.net

[고창소식]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행정력 집중 등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행정력 집중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이 이번에는 관내 유명 관광 자원을 활용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한다.

군은 24일 해리면사무소에서 전북도 및 군 관계자와 군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전북대 지구과학교육과 조규성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 설명회에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와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을 청취했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전과 교육,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공원을 말한다.

조건은 공원면적 100㎢, 지질명소 20개 이상 및 필수조건 25개를 이행해야 하며 인증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간이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지역 브랜드의 가치향상과 지질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해 새로운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청송, 부산, 강원 평화지역, 무등산, 한탄·임진강 등 7개 지역이 등록돼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 5~6개의 국가지질공원을 추가 인증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고창·부안권역, 진안·무주권역 등 2개 권역을 대상으로 인증을 추진 중이며 고창군에서는 하전갯벌과 동호해안사구, 명사십리해변, 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군, 고창읍성 등을 대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나선 상태다.

군은 올해 인증 조건을 맞추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 오는 9월까지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지질자원이 있는 각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청정하고 인정 넘치는 고창으로 여행오세요"

고창군이 도에서 추진한 국제 관광홍보행사에 참여, 지역 곳곳의 관광지와 관광자원을 소개했다.

군은 24일 서울 명동 르와지르호텔에서 국내 주요여행사와 언론홍보매체, 관광 관련 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북 트래블마트'에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지역개발연구원과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주관으로 '2016년~2018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도내 14개 시군, 태권도진흥재단, 전주소리축제상설공연추진단 등 50여개 단체가 참여해 전북의 손꼽히는 관광자원들을 홍보했다.

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유비무환'의 상징 고창읍성과 천년고찰의 선운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등 고창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

또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와 농악에 대해서도 널리 알렸다.

군 관계자는 "트래블마트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창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세계인이 찾는 고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6685@newsis.com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24일 해리면사무소에서 전북도 관계자,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현갑 고창군 생물권보전사업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 News1

전북 고창군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24일 해리면사무소에서 전북도 관계자,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규성 전북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의 발표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와 그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인증 조건은 공원면적 100km², 지질명소 20개 이상 및 필수조건 25개를 이행해야 하며 인증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이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지역브랜드 가치향상과 더불어 지질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증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울릉도·독도, 청송, 부산, 강원 평화지역, 무등산, 한탄·임진강 7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까지 5~6개 국가지질공원을 추가로 인증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하전갯벌, 동호해안사구, 명사십리해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의 경수산·천마봉, 병바위, 고인돌군, 고창읍성 등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지질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3월부터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도내 우수 지질자원을 현명하게 보전 및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창-부안권역과 진안-무주권역 등 2개 권역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군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을 위해 지질자원이 있는 소재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조건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철 기자(jcpark@)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주민 설명회 개최



[전북=동양뉴스통신]조준수 기자=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24일 해리면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는 도·군 관계자와 군의원,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조규성 교수의 발표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와 그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인증 조건은 공원면적 100km², 지질명소 20개 이상 및 필수조건 25개를 이행해야 하며 인증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이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지역브랜드 가치향상과 더불어 지질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증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울릉도·독도, 청송, 부산, 강원 평화지역, 무등산, 한탄·임진강 7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까지 5~6개 국가지질공원을 추가로 인증할 계획이다.

이에 도에서는 도내 우수 지질자원을 현명하게 보전 및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창-부안권역과 진안-무주권역 등 2개 권역

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하전갯벌, 동호해안사구, 명사십리해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의 경수산·천마봉, 병바위, 고인돌군, 고창읍성 등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지질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작년 3월부터 올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도와 4개 시·군이 연계 협력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작년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세부추진계획 수립, 도와 4개 시·군 간 MOU체결, 지질공원 TF팀 구성,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지질자원조사 용역 등을 수행했으며 올해에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 인증 신청서를 올 9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을 위해 지질자원이 있는 소재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인식증진 교육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조건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조준수 dynewsk1@naver.com

<저작권자 © 동양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주민 설명회 개최

(고창=국제뉴스) 김희열 기자 = 전북 고창군이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24일 해리면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는 전북도·군 관계자와 군의원,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조규성 교수의 발표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와 그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인증 조건은 공원면적 100㎢, 지질명소 20개 이상 및 필수조건 25개를 이행해야 하며 인증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이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지역브랜드 가치향상과 더불어 지질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증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울릉도·독도, 청송, 부산, 강원 평화지역, 무등산, 한탄·임진강 7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까지 5~6개 국가지질공원을 추가로 인증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도내 우수 지질자원을 현명하게 보전 및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창-부안권역과 진안-무주권역 등 2개 권역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고창군은 하전갯벌, 동호해안사구, 명사심리해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의 경수산·천마봉, 병바위, 고인돌군, 고창읍성 등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지질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도와 4개 시·군이 연계 협력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세부추진계획 수립, 도와 4개 시·군 간 MOU체결, 지질공원 TF팀 구성,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지질자원조사 용역 등을 수행했으며 올해에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 인증 신청서를 올 9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을 위해 지질자원이 있는 소재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인식증진 교육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조건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